설레임팀이 알려주는 수능 예측

①-a 배치 상의 유사도

2025학년도 6월과 9월 모의평가는 공통적으로 같은 번호에 같은 단원이 나온 형태가 굉장히 많은 시험지였다.

	6월	**9월**
9번	함수의 연속	단순 적분 계산
10번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
11번	접선의 방정식	속도와 가속도
12번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등차수열과 수열의 합
13번	정적분과 넓이	정적분과 넓이
14번	지수와 로그 계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15번	정적분의 의미 해석	정적분과 도함수의 관계
20번	삼각함수의 그래프	구간별로 정의된 삼각함수
21번	도함수의 활용 (그래프 해석)	미분계수와 도함수
22번	귀납적 정의된 수열	귀납적 정의된 수열

평가원 주특기가 뒷북 치는 거라 이 흐름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흐름에서 큰 변동이 없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평가원은 소위 '킬러 문항'을 내지 않으면서 학생들을 변별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6월/9월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실험'을 하면서 적절한 형태의 문항 구조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024학년도 6월 : ㄱㄴㄷ 문제의 ABC 변환
- 2024학년도 9월 : 가나다 문제의 주관식 문제 출현

2024학년도 수능에서 평가원은 위의 두 실험 결과 결국 수능에서 논증형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다. 이는 평가원이 6월과 9월의 실험에서 '논증형 문제'의 출제 실험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실험의 경우는 6월에서 유의미한 성공 결과를 거두었는지 9월에서도 유사한 구조의 문항이 출제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수능에도 충분히 비슷한 형태로 문항이 출제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평가원이 뒷북을 칠 가능성은 전혀 배제하지 못하지만, 평가원이 수능이라는 시험을 출제하는 목적은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함이지 '학생들이 틀리게'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곧, 두 시험에서 평가원이 학생들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받았다면 굳이 수능에서도 위험한 실험을 하지는 않을 것이며, 이와 비슷한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다.

킬러 문항 이슈가 있는 만큼 무리하게 발상이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 **끈기 있게 도전하고 풀면 풀리는 문제들 위주**로 구성될 것으로 생각된다. 정답률이 낮기로 유명한 2024학년도 수능 22번의 경우에도 발상이 막 어렵기보다는 이것저것 해보다 보면 풀리는 형태로 문제가 세팅되어 있다. 과거 기출처럼 **'특수 케이스'를 다루는 형태의 고난도 문항은 출제되지 않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여러 경우를 모두 배제하지 않고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①-b 성적대별 학습 방법 조언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소재로 '여러 가지 소재'를 다룬 고난도 문항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소재라 함은 수열 고난도, 그래프 고난도 이런 유형들보다도 지수와 로그 고난도, 극한 고난도 문항처럼 잘 안 나오던 소재의 고난도 유형을 의미한다. 특히, **지수와 로그** 단원에 집중하기를 바란다. 수열 문항의 경우 워낙 오랜 세월동안 어렵게 나오던 유형이라 시중 교재로 충분히 학습 가능하며, [수학2] 문항의 경우 단원에 관계 없이 어렵게 나오는 것이 일상이라 아마 대부분의 최상위권 학생들은 그리 대비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수와 로그 단원 문항이 14번 이상의 번호대로 올라오면서 충분히 그 위상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2025학년도 6월, 9월 14번은 모두 지수와 로그 단원에서 출제되었다. 이에 이어 수능에서도 지수와 로그 단원은 결코 쉬운 난이도로 출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상위권 학생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어렵게 나오던 소재만 푸는 것인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수와 로그 단원에 조금 더 힘써보는 것을 추천한다.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특정 번호대를 그냥 패스하는 습관을 버릴 필요가 있다. 이번 9월 모의평가 15번의 경우에는 실질적 체감 난이도로는 수능 11~12번 정도의 난이도였다.
이렇게 역난이도 배치를 주어 고의적으로 정답률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문제를 끝까지 보고 풀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시험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험 운용 계획을 잘 짜두는 편이 좋다. 예를 들어, '14번과 15번은 합쳐서 15분까지만 소비한다'와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문제 각각의 시간 계획을 짜두기 보다는 그 주변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몇 분 안에 푸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정해두는 편이 좋다. 여러 실모들을 풀면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운용 계획을 짜보길 바란다.

중상위권 이하의 학생들은 남은 기간동안 최대한 계산을 꼼꼼하게 하는 연습을 해두는 편이 좋다. 고난도 번호대와 달리 낮은 난이도의 4점 번호대는 큰 변수 없이 유사한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출문제들을 잘 복습**해두고 최소한 12번까지는 전부 맞겠다는 각오로 임하는 편이 좋다. 특히, 최근에는 저난도 문항들에서도 **계산량을 높여서** 변별을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경우에는 내가 하고 있는 계산이 맞는지 잘 확인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수능날에는 내가 실수로 틀렸든 몰라서 틀렸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자.
또한, 최근 기출문제의 학습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4페이지에서 언급하였지만,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발문만 바꿔서 출제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기출문제에 나왔던 소재를 몰라서 틀리면 너무 아깝지 않겠는가? 따라서 기출문제 학습에 소홀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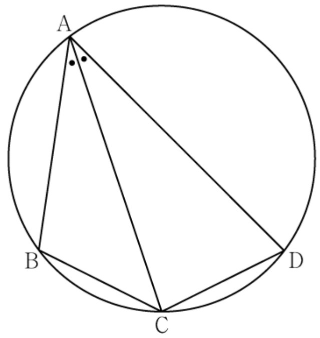
② 사인코사인법칙 문항의 FLOW

2024학년도부터 2025학년도 9월에 이르기까지 평가원 모의고사 시험에서는 중등 과정에서 사용하는 내용의 비중이 매우 줄어들었음을 체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학년도의 경우 도형 관련 문항에서 다음과 같이 중등 기하 개념을 요소로 평가하는 형태의 문제가 많다.

11. 그림과 같이 사각형 ABCD가 한 원에 내접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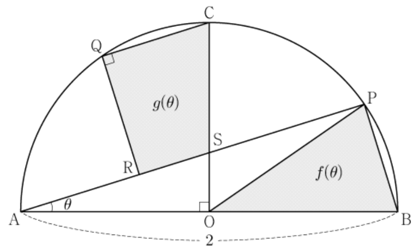
$$\overline{AB}=5,\ \overline{AC}=3\sqrt{5},\ \overline{AD}=7,\ \angle BAC=\angle CAD$$

일 때,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4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8. 그림과 같이 중심이 O이고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위에 $\angle AOC=\frac{\pi}{2}$인 점 C가 있다. 호 BC 위에 점 P와 호 CA 위에 점 Q를 $\overline{PB}=\overline{QC}$가 되도록 잡고, 선분 AP 위에 점 R를 $\angle CQR=\frac{\pi}{2}$가 되도록 잡는다. 선분 AP와 선분 CO의 교점을 S라 하자. $\angle PAB=\theta$일 때, 삼각형 POB의 넓이를 $f(\theta)$, 사각형 CQRS의 넓이를 $g(\theta)$라 하자. $\lim_{\theta\to 0+}\frac{3f(\theta)-2g(\theta)}{\theta^2}$의 값은? (단, $0<\theta<\frac{\pi}{4}$) [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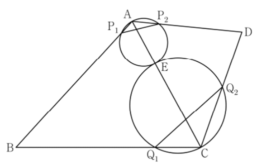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이러한 형태의 중등 기하 활용 문항은 2024학년도에 들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였다.
이제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들을 살펴보자.

13. 그림과 같이

$$\overline{BC}=3,\ \overline{CD}=2,\ \cos(\angle BCD)=-\frac{1}{3},\ \angle DAB>\frac{\pi}{2}$$

인 사각형 ABCD에서 두 삼각형 ABC와 ACD는 모두 예각삼각형이다. 선분 AC를 1:2로 내분하는 점 E에 대하여 선분 AE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두 선분 AB, AD와 만나는 점 중 A가 아닌 점을 각각 P_1, P_2라 하고, 선분 CE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두 선분 BC, CD와 만나는 점 중 C가 아닌 점을 각각 Q_1, Q_2라 하자. $\overline{P_1P_2}:\overline{Q_1Q_2}=3:5\sqrt{2}$이고 삼각형 ABD의 넓이가 2일 때, $\overline{AB}+\overline{AD}$의 값은? (단, $\overline{AB}>\overline{AD}$) [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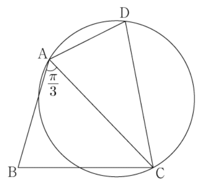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13. 그림과 같이

$$\overline{AB}=3,\quad \overline{BC}=\sqrt{13},\quad \overline{AD}\times\overline{CD}=9,\quad \angle BAC=\frac{\pi}{3}$$

인 사각형 ABCD가 있다. 삼각형 ABC의 넓이를 S_1, 삼각형 ACD의 넓이를 S_2라 하고, 삼각형 ACD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 하자.
$S_2=\frac{5}{6}S_1$일 때, $\frac{R}{\sin(\angle ADC)}$의 값은? [4점]



[2024학년도 수능]

10.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9π일 때, 삼각형 ABC의 넓이는? [4점]

(가) $3\sin A=2\sin B$
(나) $\cos B=\cos C$

[2025 6월]

10. $\angle A>\frac{\pi}{2}$인 삼각형 ABC의 꼭짓점 A에서 선분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자.

$$\overline{AB}:\overline{AC}=\sqrt{2}:1,\quad \overline{AH}=2$$

이고,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50π일 때, 선분 BH의 길이는? [4점]

[2025 9월]

위의 문제들의 특징은 문제 풀이 과정에서 중등 기하의 요소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실상 없다고 표현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특히, 2025학년도에 들어서는 다른 도형과 연계하지

않고, 순수하게 삼각형 하나에서만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을 묻는 형태의 문항이 출제되기 시작하였다. 기존에는 다양한 도형을 연계시켜서 출제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러한 형태의 문항 출제 기조는 수능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중등 기하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인코사인법칙 문제를 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위의 [2024학년도 6월]처럼 보조선을 긋는 등 학생들이 답을 찾기 어렵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과하게 '발상적'인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항을 출제하는 입장에서도 적정 수준의 4점(10~12점, 20점) 정도로 출제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고난도 번호대(13~15번)에 출제되더라도 [2024 수능] 13번처럼 번호대만 높고 실제로는 쉬운 난도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러한 형태의 문항을 어려운 번호대(15번)에 배치하려면 [2022학년도 수능] 15번처럼 최소 수준의 중등 기하 해석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는 평가원이 바라지 않는 흐름으로 보이므로 수험생들은 사인코사인법칙 문항에서 중등 기하로 인해 높은 난도의 문제가 출제되는 상황을 크게 염려하진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미출제 요소인 삼각함수의 값 사이의 관계를 소재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에 주목하자. '삼각함수의 값 사이의 관계'란 다음과 같은 형태의 조건을 포함한 문제를 의미한다.

(예시) 삼각형 ABC에서 $\sin A = 2\sin B \cos C$

③ 발문의 느슨해짐

9. 함수

$$f(x) = \begin{cases} x - \dfrac{1}{2} & (x < 0) \\ -x^2 + 3 & (x \geq 0) \end{cases}$$

에 대하여 함수 $(f(x)+a)^2$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일 때, 상수 a의 값은? [4점]

11.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 Q의 시각 $t\,(t \geq 0)$에서의 위치가 각각

$$x_1 = t^2 + t - 6, \quad x_2 = -t^3 + 7t^2$$

이다. 두 점 P, Q의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 두 점 P, Q의 가속도를 각각 p, q라 할 때, $p-q$의 값은? [4점]

위의 두 문항은 각각 6월/9월에 출제된 문항의 발문이다. 잘 보면 기존에 평가원이 쓰던 발문과 약간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f(x)+a\}^2$이라 안 쓰고 $(f(x)+a)^2$로 쓴 점, $x_1(t)$, $x_2(t)$ 등의 표현 방식에서 x_1, x_2 등 시중 문제집에서 쓰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한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점은 의도한 것일 수도 있지만, 평가원 측에서도 이러한 발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도 그럴 것이 위의 두 번째 문제는 그냥 발문까지 기출 변형이다...**

2020학년도 수능 나형 27번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11번
27.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 Q의 시각 $t\,(t \geq 0)$에서의 위치 x_1, x_2가 $x_1 = t^3 - 2t^2 + 3t$, $x_2 = t^2 + 12t$ 이다. 두 점 P, Q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두 점 P, Q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4점]	**11.**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 Q의 시각 $t\,(t \geq 0)$에서의 위치가 각각 $x_1 = t^2 + t - 6$, $x_2 = -t^3 + 7t^2$ 이다. 두 점 P, Q의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 두 점 P, Q의 가속도를 각각 p, q라 할 때, $p-q$의 값은? [4점]

물론 수능 때 투입되는 인력은 훨씬 많은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러한 발문 변화가 교정될 수도 있다. 하지만, 교수들의 입장에서는 수학적 오류만 없다면 이러한 형태의 발문을 사용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기존에 수능 때 못 보던 형태의 발문을 맞이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④ 수열 문제의 특이점

22. 수열 $\{a_n\}$은

$$a_2 = -a_1$$

이고, $n \geq 2$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_{n+1} = \begin{cases} a_n - \sqrt{n} \times a_{\sqrt{n}} & (\sqrt{n}\text{이 자연수이고 } a_n > 0\text{인 경우}) \\ a_n + 1 & (\text{그 외의 경우}) \end{cases}$$

를 만족시킨다. $a_{15} = 1$이 되도록 하는 모든 a_1의 값의 곱을 구하시오. [4점]

[2025학년도 6월]

22. 양수 k에 대하여 $a_1 = k$인 수열 $\{a_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 (가) $a_2 \times a_3 < 0$
> (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 $\left(a_{n+1} - a_n + \frac{2}{3}k\right)(a_{n+1} + ka_n) = 0$이다.

$a_5 = 0$이 되도록 하는 서로 다른 모든 양수 k에 대하여 k^2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4점]

[2025학년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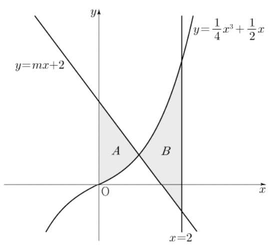
위의 두 문제의 발문의 공통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어차피 글에서는 기다려주고 싶어도 기다릴 수가 없으니 답을 공개하면, **'모든' 값의 합 또는 곱을 물어본다**는 점이다. 실제로 여러 문항을 출제하면서 평가원이 출제한 귀납적 수열 문항들을 보면 매우 높은 확률로 '모든' 값을 물어보고 있다. 이러한 수열 문제의 FLOW에서 우리가 얻어가야 할 것은 수열 문제에서 더욱 꼼꼼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수열 문제를 흔히 '잘 나열'하면 되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이는 사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열 문제의 변별 요소가 '나열'에 있다는 것은 잘 모른 채 문제에 있는 다른 요소에 집중을 하곤 한다. 수열 문제를 풀고 나서 검토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경우를 바르게 나열했는가'임을 명심하자. 특히, 이번 년도에 들어 수열 문제가 22번 문항으로 오면 학생들은 **더욱 실수하기 쉬워진다.** 객관식에 출제되던 시절에는 대충 구해놓고 답이 선지 중에 없으면 거르면 되는 구조였지만, 주관식으로 출제되면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알기 어려워진다. 22번 쉽게 나온다고 무조건 무시하지 말고, 실모나 N제 풀 때마다 내가 **케이스 바르게 세우고 잘 셌는지** 꼭 확인하자. 수열 단원에서 케이스 못 세서 틀린 건 '실수해서 틀린 게 아니라 몰라서 틀린거나' 다름없다.

⑤ 넓이 문제에 대한 평가원의 실험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풀면서 '이 번호대에 이게 온다고?' 싶은 문항은 무엇이었는가? 필자를 기준으로는 13번을 뽑고 싶다. 두 문제는 공통적으로 '정적분과 넓이'를 다루고 있는 문항이다.

13. 곡선 $y=\frac{1}{4}x^3+\frac{1}{2}x$와 직선 $y=mx+2$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 곡선 $y=\frac{1}{4}x^3+\frac{1}{2}x$와 두 직선 $y=mx+2$, $x=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B라 하자. $B-A=\frac{2}{3}$일 때, 상수 m의 값은? (단, $m<-1$) [4점]

① $-\frac{3}{2}$ ② $-\frac{17}{12}$ ③ $-\frac{4}{3}$ ④ $-\frac{5}{4}$ ⑤ $-\frac{7}{6}$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13. 함수

$$f(x) = \begin{cases} -x^2-2x+6 & (x<0) \\ -x^2+2x+6 & (x \geq 0) \end{cases}$$

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P, Q라 하고, 상수 $k\,(k>4)$에 대하여 직선 $x=k$가 x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 하자. 곡선 $y=f(x)$와 선분 PQ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 곡선 $y=f(x)$와 직선 $x=k$ 및 선분 QR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B라 하자. $A=2B$일 때, k의 값은? (단, 점 P의 x좌표는 음수이다.) [4점]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위의 두 문항은 모두 13번에 출제된 넓이 문제로, 9월 모의평가의 정답률이 6월에 비해 높은 편이다. 평가원이 넓이 소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은 눈치챌 수 있지만, 이러한 13번 날먹 형태의 문제가 수능 때까지 계속해서 출제될지는 다소 의문이다.

학생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9월 모의평가가 이렇게 쉽게 나온 이상 수능 때는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제는 위의 6월 13번의 경우 정답률이 약 45% 정도였는데, 이번 9월 13번의 경우에는 55%로 이전에 비해 10% 가량 올랐다. 평가원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이제 이 유형에 충분히 익숙해졌다'**라고 판단하기 쉬운 대목이다. 그런데 평가원이 이 상태에서 똑같이 적분 13번을 낸다 한들 그것이 평가로써 가지는 의미가 있을까?

이미 평가원은 학생들이 적분과 넓이 단원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음을 알고 있는데, 이 요소를 굳이 더 어렵게 만들어 평가하기보다는 원래 평가하지 않았던 단원을 추가적으로 평가하는 편이 '평가로써의 목적'에 조금 더 부합하지 않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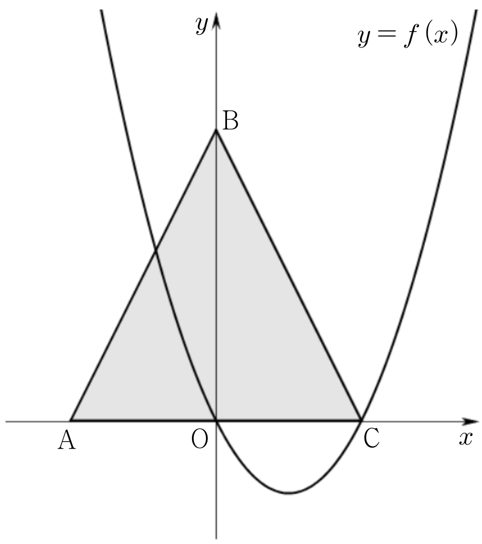
평가원이 항상 정적분과 넓이를 문제에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형이 아예 안 나올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섣부른 생각이지만, 정적분과 넓이 문항이 수능 때도 쉽고 번호대만 높은 형태로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필자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게 된다. 무엇보다도 넓이 문제로 어렵게 만들기가 생각보다 어렵다..

위의 문항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도 변형될 수 있다. 심심한 학생들은 한 번 풀어보자.

[2025학년도 6월 SEL:ON 11번]

상수 $a\,(a>0)$에 대하여 세 점 $\mathrm{A}(-2,\,0)$, $\mathrm{B}(0,\,2a)$, $\mathrm{C}(2,\,0)$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이고 $f(-1)=a$인 이차함수 $f(x)$의 그래프가 두 점 O, C를 지난다. 삼각형 ABC가 곡선 $y=f(x)$에 의해 나뉘는 두 영역의 넓이를 크기가 큰 순서대로 각각 A, B라 하자. $A-B=2$일 때, a의 값은? [4점]

① $\dfrac{14}{15}$ ② $\dfrac{15}{16}$ ③ $\dfrac{16}{17}$ ④ $\dfrac{17}{18}$ ⑤ $\dfrac{18}{19}$



⑥ 무시받고 있는 그 소재, '극한'

2025학년도 6월과 9월에서 극한 문제는 12번 이후의 그 어떤 4점에서도 출제되지 않았다. 이는 중요한 신호이다. 평가원은 학생들의 수준을 적절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특정 단원에서만 평가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일부 단원은 학생들이 '적정 수준' 이상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어려워진다. 실제로 공통 수능 시행 이후 6월/9월/수능에 모두 극한 단원의 문제가 '고난도로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적'은 없었다. 이는 2022년도부터 기출문제를 분석하다보면 자연스레 관찰할 수 있다.

반면, 2025학년도 6월의 경우 극한 단원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된 번호는 11번, 9월의 경우에는 **4점 문항에서 극한 단원 단독으로 출제된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 되려, 적분 단원이 매우 강조된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우연의 일치로 그런 것이라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자. 6월, 9월, 수능에서 모두 극한 단원이 매우 쉬운 번호대에 출제된다면 이는 '극한 단원에 약해도 고득점이 가능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평가원이 바라는 흐름은 아닐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평가원도 처음 문항을 출제할 때 단원별 밸런스를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문항을 출제하는 만큼 이것을 아예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갑자기 극한이 22번에 박혀도 할 말이 없다."

언제나 강조하지만 이 의견은 어디까지나 출제자 한 명의 의견이기에 분명 틀릴 수 있다. 위에 언급한 모든 내용도 100% 맞는다는 보장은 없다. 우리가 평가원에 직접 들어간 것이 아닌 이상 예외 상황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필자는 최대한 사실에 입각하여 팩트만을 전달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팩트가 **"이번 년도에는 극한/연속에서 전혀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점이다. 교육과정의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극한 단원이 너무나 비중이 적게 출제되고 있는 점은 분명히 이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믿고 말고는 학습자 개개인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2025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충분히 고려해보기를 바라는 바이다.

⑦ 마무리하며!

수능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단순히 '문제지 한 세트'로 볼만한 시험이 아니다. 전국의 수백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되어 여러 과목별 밸런스 및 각종 높으신 분들의 토론, 협의 과정을 통해 생기는 시험지가 바로 수능이다. 때문에 우리가 6월, 9월 모의평가만을 가지고 수능의 흐름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도 '이럴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만 말할 뿐 '확실히 이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위의 언급한 내용들은 충분히 그럴만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들 위주로 구성한 만큼 학생들은 위의 내용을 참조로만 기억해두고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길 바란다.

더불어, 추석 이후에 시대인재북스에서 출판될 설레임 모의고사에서는 위의 신념과 출제 경향성, 그리고 6월, 9월 모의평가를 잘 반영하여 문항을 출제하였으니 이 모의고사도 많은 관심을 부탁하는 바이다.

9월 모의평가의 경우 유형만 반영했지 퀄리티까지 반영하진 않았으니 안심하길 바란다!

Team SEOL:NAME